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3-08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3-08
2021년 03월 08일 2021년 03월 08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268633293](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68633293)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년 03월 08일 2021년 03월 08일

차례

1. [체제편입을요구하지말고체제에반란하자]	3
2. [고난과혐오에대항한연대를]	4
3. [화시촌은사회주의의실패인가?]	4

국가를지탱하는생산수단을최대한독점후사회화하여국가가성립할수없도록해야한다.

” 파산위기농인중국’ 최고부촌”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04771_34943.html

” 중국화시촌, 사회주의 + 자본주의 = ‘무릉도원’”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380842.html>

” 주민들에게 150 평주택, 중형차나눠주던마을의몰락” :

<https://news.joins.com/article/21982350>

1. [체제편입을요구하지말고체제에반란하자]

故변희수하사의죽음을보며, 안타까움을금할수없었다. 누군가의성적정체성, 성적지향성이그삶을선택할자유를침해하는것은언제보아도안타깝다. 국가의폭력이, 그들이지정한“소수자”를짓밟고, 짓누르고, 그짓밟힌이가아파하고, 괴로워하다, 끝내는자신의목숨마저내어놓아야하는것이, 우리에게는결코남의일이되지못한다. 그녀의죽음은국가폭력에의해희생된모든이의죽음이고, 언제라도그희생자가될수있는모든인민대중에게위협이다.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는그녀를온전히추모할수없다. ‘인간’변희수씨는분명한국가폭력의희생자이지만, ‘하사’변희수씨는국가폭력의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나라를지키는당당한여군이되고싶”하던그녀의말은, 자기자유를박탈당한인민의가슴아픈목소리이면서도, 그“나라”의폭력의일부가되고자하는적극적의지인것이야닌가.

어찌보면, 군대라는조직이트랜스젠더의복무를거부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 이성애중심주의라는것은결국노동력의꾸준한재생산을요하는자본주의적담론이다. 국가는그자본주의의경호원이고, 군대는그경호원이독점하고있는폭력이다. 그러하건데, 소수자의탄압에앞장서야하는전위에, 어찌소수자를둘수있겠는가.

그렇기에, 변희수하사의강제전역이반려되고, 그녀가“당당한여군”이되는데는, 체제의근본적변혁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오직그체제에트랜스젠더운동이편입되었다는것을의미할뿐이다. 군대와전쟁이오직귀족계급남성의전유물이었던시대에서, 군대의문호가무산대중으로, 여성으로, 유색인종으로확대되었다고해서사회가변혁한것이아닌것처럼, 결국그들을표면적배제의대상에서제외하고다른배제의대상을만들어내었다는의미상을가지지못하는것처럼말이다.

국가의손에줘어진검은색 K-2 소총이인민대중을죽이는총이라면, 국가가 쥐고있는무지개색 K-2 역시인민대중을죽일수있다. 우리에게필요한것은총의도색을바꾸는것이아니라, 국가와자본의손에서총을빼앗아, 인민의손에돌려놓는것이여야한다. 소수자의체제편입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체제자체를근본적으로변혁하는것이여야한다.

변희수씨의아픔에깊은안타까움을전한다. 이러한일은다시는없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나라를지키는일”에트랜스젠더가편입할수있는제도를만드는것이아니라트랜스젠더에대한차별을정당화하고, 제도화하는국가자체를무너트려야한다. 변희수씨에대한추모에서멈추지말고, 또다른변희수씨가, 나라를지키는것이아니라, “자신의힘으로, 자신이사랑하는사람들의공동체를지키고싶다”고말할수있는세상을위해투쟁해나가자.

”” 변희수하사의죽음은사회적타살”...이어지는추모물결” :

2. [고난과 혐오에 대항한 연대를]

코로나는 우리 사회에 육체적 질병만이 아닌 혐오라는 이름의 정신적 질병마저 도가져왔다. 지난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후 심화된 혐오 문화는 반종감정과 맞물려 혐오의 대상으로 그들로 잡았고 미국에서는 인종주의적 혐오 범죄의 급증이란 작금의 결과로 나타났다. 혐오자들의 인종주의적 혐오는 중국계만이 아닌 아시아계 전반을 향하고 있으며 뉴욕에서 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 비율이 7 배로 증가한 상태이다.

이는 비단 미국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존재했던 중국인, 특히 조선족에 대한 혐오 문제는 코로나 시작 이래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온라인 상에 만연한 혐오 표현은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와 언론들, 이 시기를 이용해 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우파들과 이로 인한 일상적인 혐오들. 중국인, 조선족에 대한 혐오는 충분히 심각하다.

우리들은 이런 혐오에 굴할 수 없다. 코로나의 근원지가 어디냐 따위는 어떤 혐오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이 땅에서도 해외에서도 모두가 통스러운 시기를 맞아 서소수자,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자하는 이들에 대항하여야 한다.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혐오가 아닌 연대의 정신이다.

”” 죽을까 봐 무서웠다”...美 아시아계 혐오 범죄 급증”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
”” 혐오 백신은 언제 나오죠” 대립동중국 동포’ 울분, 상처’ 그대로”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3. [화시촌은 사회주의의 실패인가?]

1961년, 중국어어느 비좁은 황무지 땅에서 화시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시작되었고 그 마을에서 우런 바오전 서기는 비밀리에 주민들을 모아 1969년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작은 철물공장을 세웠다. 이들은 당시에는 중앙 정부의 관료들이 방문하면 일부러 농사를 짓는 척 하면서 그들이 떠나면 몰래 공장을 돌리고는 했다. 마오쩌둥 이후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1979년 개혁개방이 시작되자 이미 시장경제에 진출할 기반을 갖추고 있던 화시촌의 향진기업은 고속 성장을 하면서 부유함과

풍족한 복지를 누리기 시작했고 21세기 초에는 한국 언론으로부터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적절히 융합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그러다가 2017년, 중앙일보의 국제면에 화시촌의 위기가 보도되었다. 이후 계속하여 몰락해가는 화시촌이 보도되면서 결국 2021년 3월 1일 MBC 뉴스에서 파산 위기에 놓인 화시촌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기존 낙후 산업으로부터의 체질 전환 실패와 집체주의식 공동 경영을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삼았으며 사회주의의 한계점이라 말한다. 그러나 과연 화시촌의 실패는 사회주의의 실패인가? 우선 단순히 화시촌을 기업으로만 보고 자본주의적으로 따지면 체질 전환 실패와 공동 경영의 한계가 몰락의 원인이 맞다. 그러나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행복할 권리, 복지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잠시 사회주의의 실패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애초에 화시촌 향진기업이 사회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겠다. 화시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국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마을 기반 기업이다. 즉, 화시촌도 결국 본질은 기업이며 사회주의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주민들이 모두 기업의 주식 중 일정량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을 같이 한다고 해도 그 한 가지 사회주의적 요소를 제외하면 모든 것은 자본주의의 토대 하에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된다.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화시촌은 사회주의적 공동체로의 전환을 실패한 것이 애초에 사회주의라 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화시촌은 왜 사회주의적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에 실패했는가? 그전에 화시촌이 사회주의적 공동체로 전환이 가능했는지 따져보자. 우선 1969년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작은 철물공장이라는 생산 수단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주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은 좋은 시작점이다. 이후 1979년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화시촌에는 부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후에 만약 화시촌의 주민들이 관광객을 위한 호화 시설이나 금융업 등이 이윤 추구에 힘을 쏟지 않고 축적한 부를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확보했다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립하여 경기 순환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서 자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시촌은 그러지 않고 다른 기업과 다를 것 없이 이윤 추구에 집착하다가 필연적인 경기 순환의 힘에 휩쓸려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그러나 화시촌의 실패를 그저 탐욕스런 주민들의 잘못이나 사회주의 자체의 한계라 할 수 있는가? 원래부터 살아왔던 주민과 이후 향진기업에 고용된 농민 공간에 존재했던 격차를 생각하면 사회주의적 공동체로 전환이 가능했을까 의문일 수도 하지만 일단 그렇게까지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아무리 화시촌에서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 수단을 확보하여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에서 최대한 독립한 다해 결국 국가가 권력 유지 비용을 위해 요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필요 이상을 생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을 벗어나 사회주의적 공동체로 전환하여 모두가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국가가 있는 한 우리는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탈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국가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면 민중이 단결하여